

청소년의 의복행동에 대한 자아중심성, 자의식, 신체만족도의 영향 연구

고 애 란 · 김 양 진

연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의류환경학과

The Effects of Egocentrism, Self-Consciousness, Body Cathexis on Adolescence Clothing Behavior

Aeran Koh · Yangjin Kim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Yonsei University

(1996. 4. 16 접수)

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1) to identify the effects of age and sex on adolescent's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egocentrism, self-consciousness, body cathexis and clothing behaviors and 2) to identify the effects of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n clothing behaviors in each of the 6 groups classified by sex and age.

Egocentrism was measured by Kim's Imaginary Audience Scale, and body cathexis, by the modified Secord and Jourard's Body Cathexis Scale. Buss's Self-Consciousness Scale was slightly modified to assess public and private self-consciousness, and five aspects of clothing behavior were assessed with the questionnaires from the previous studies. The questionnaire were administered to 713 middle and high school boys and girls, and college students living in Seoul. Data were analyzed by frequency, factor Analysis, two-way ANOVA,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Four factors of egocentrism were identified: Potency, Appearance/popularity, Sympathy and Justice. Four factors of clothing behavior were Clothing exhibition/dressing for others, Clothing interest, Psychological dependence, and Clothing conformity. 2) Sex and age were found to have effects on psychological variables and clothing behaviors of adolescence. Females showed higher egocentrism, self-consciousness, clothing behaviors, but lower body cathexis than males. The mean scores of egocentrism, self-consciousness, clothing behaviors tended to increase with age. However, high school boys showed unique tendency, as they showed higher scores in those variables than the other two age groups. 3) Egocentrism (Appearance/popularity factor) and public self-consciousness were the most influential variables on adolescent's clothing behavior among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Private self-consciousness was found to be an important variable in explaining Psychological dependence.

I. 서 론

개인의 의복행동은 단순히 신체보호를 위한 기능적인 차원을 넘어서 자신의 욕구나 관심, 습관 등 심리적 요인에 의하여 나타난다. 의복에 대한 관심이나 중요성은 개인에 따라 다르며, 연령층에 따라 그 차이를 보이지만 특히 청소년기에는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고 자아개념의 정립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정서적으로 불안정을 느끼게 된다. 따라서 또래집단 소속에 대한 열망이 높고 의복과 외모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다. 이들의 외모와 의복에 대한 만족은 기분이나 행동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되어 의복을 잘 입었다고 느낄 때는 더 자신감이 있고 적극적이나, 부적당한 의복은 심리적으로 위축감을 느끼게 한다.

청소년기에는 다른 인생단계에서 보기 드문 여러가지 독특한 행동이 나타나는데 특히 고양된 자의식, 패거리 짓기, 이상주의, 과시행동, 무모한 행동(폭주족, 약물 복용, 10대 임신, 위험 행동), 수치심 및 수줍음에 대한 예민한 등으로서, 이러한 특징을 설명하는 Elkind¹⁾의 '청소년기 자아중심성'에 관한 연구가 국내에서도 많이 진행되고 있다²⁻⁵⁾. 청소년기에는 정서적으로 민감해짐과 동시에 타인을 의식하면서 자신에 대해 찬양 또는 비판을 가하게 되는데 이것이 곧 청소년들의 의복행동으로 표출된다. 따라서 청소년기의 높은 의복관심 및 의복행동 양상은 그들의 심리적 특성들과 밀접한 상호 관련성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청소년기의 의복행동과 심리적 특성들간의 관계를 심층적으로 다룬 연구는 많지 않으며, 특히 청소년기의 독특한 행동에 대한 설명변수가 될 수 있는 자아중심성과 의복행동과의 관련성을 다룬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에 있는 남녀 중·고·대학생을 대상으로 자아중심성의 의복행동에 대한 설명변수의 가능성을 분석해 보고, 청소년들의 자아중심성, 자의식, 신체만족도 수준을 알아보고, 이들이 의복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봄으로써, 이들 심리변인들과 의복행동간의 관련성을 심도있게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심리변인과 의복행동간의 관계에 대한 심도있

는 분석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성과 연령에 따른 변인의 차이를 비교하고 심리적 특성변인과 의복행동변인간의 관련성을 성·연령에 따른 각 집단별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의복행동과 자아중심성, 자의식, 신체만족도 수준의 성과 연령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다.

둘째, 청소년의 의복행동에 대한 심리적 특성변인의 영향력을 성과 연령에 따라 규명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청소년기 자아중심성

청소년기는 시대에 따라 정의가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성 호르몬의 분비와 급격한 심리적인 변화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11~12세부터 추상적 사고능력과 자아정체감 형성이 이루어지는 18~20세경까지를 말하는데 중학교 시기는 청소년 초기(early adolescence), 고교 및 대학시기는 청소년 후기(late adolescence)로 구분된다⁶⁾. 청소년기의 가장 어려운 과제중의 하나는 사회적 적응 문제인데 이 시기에는 새로운 사회의 기대와 역할에 적응해야 되므로 동조성이 높아지며, 친구들과 비슷한 행동을 함으로써 부모님과 선생님으로부터 얻을 수 없는 사회적 안정감을 느끼고 싶어 한다.

자아중심성 개념은 흔히 '타인의 입장을 고려하지 못하는 것'⁷⁾으로 정의된다. Elkind¹⁾는 청소년들이 인지적으로 성숙한 단계에 접어들면서 추상적 사고를 하기 시작하고 자신의 생각을 개념화 하듯 타인의 생각도 개념화 할 수 있게 되는 반면, 자신과 타인의 생각이 똑같지 않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인지적 왜곡현상이 곧 청소년기 자아중심성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청소년들은 자신이 무엇을 입었으며,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까에 대해 자신만큼 타인들도 흥미있고 관심있다는 것을 상상하면서 가끔씩 자신에 대한 상상속의 청중(imaginary audience)을 창조해 낸다고 하였다.

상상속의 청중은 자신이 타인의 관심의 초점이 된다고 믿기 때문에 자기찬양이나 자기비판의 형태로 나타

나는 청소년 초기의 자의식에 대한 설명을 도와주는 개념이며, 이는 청소년이 실제적이거나 가상적인 상황에서 자신에 대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예측해보려는 경향을 말한다⁸⁾. Elkind⁹⁾는 상상속의 청중에 대한 높은 관심은 청소년기 정신병리나 청소년 비행과 관련된다고 보았으며, Chandler¹⁰⁾의 연구에서도 자기중심적 사고가 강한 비행 청소년들의 범죄행위 참여율이 극히 높았다고 보고했다.

청소년기 자아중심성은 사춘기의 급격한 신체변화 및 자아정체감의 추구하고 관련되어 이 시기에 급격히 증가하는 자기집중(Self-Centeredness) 성향 및 자의식(Self-Consciousness) 경향과 연관될 수 있다¹¹⁾. 청소년들의 타인에 대해 자신을 드러내는 상황에서 자의식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은 상상속의 청중 상념이 작용한 것이며²⁾, Enright¹²⁾ 등은 청소년기 자아중심성과 자의식 차원간의 정적 상관관계를 보고하였다. 또한 상상속의 청중과 신체상에 대한 관심, 외모와 행동에 대한 관심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¹³⁾.

2. 자의식

자의식은 내부나 외부로 향하는 관심의 일관된 성향을 말하며, 자아결여라는 미성숙 단계에서 자아통제가 가능한 성숙의 단계로 변화하는 과정을 갖는 인간의 정신적, 신체적 변화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자신만의 통일감이다. Fenigstein 등¹⁴⁾은 자의식 척도(Self-Consciousness Scale: SCS)를 개발하였으며, 사적 자의식과 공적 자의식의 두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사적 자의식은 자아의 개인적이고 은밀한 요소에 초점을 맞추는데 반해, 공적 자의식은 사회적 대상으로서의 자아인식을 반영한다¹⁵⁾. 즉 사적 자의식은 자신에 대한 동기와 목표에 대해 반성적이며 내적감정과 공상 등에 관심을 갖는 것이고, 공적 자의식은 자신을 타인의 관찰대상이 되는 사회적 객체로 보고 의복착용, 태도 등에 관심을 갖는 특성을 나타낸다¹⁶⁾.

자의식 정도는 연령이 낮을수록 공적, 사적 자의식이 모두 높으며¹⁷⁾, 사적 자의식과 자아중심성은 높은 정적 상관관을 보이며¹²⁾, 공적 자의식에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높은 경향을 보인다¹⁸⁾.

의복과 자의식에 관한 연구들에 따르면 자아의 공적 측면과 관계된 신체적 외모를 통한 개인의 의복사용이 자아를 반영하며, 의복이 자아표현에 관련됨을 시사하

였다. 즉 사적, 공적 자의식이 높을수록 의복동조성에 관심이 높았으며¹⁷⁾, 또한 사적 자의식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의복선택에 있어서 개인에 의하여 인지된 분위기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다¹⁵⁾.

3. 신체만족도

청소년기는 발달과정상 자아개념이 확립되어가는 시기이고 급속한 신체의 성장, 사회성의 발달로 자신의 신체 및 외모에 관심이 집중되고 사회적 활동이나 대인관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청소년기의 신체만족, 불만족은 청소년들의 정서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상적인 신체상과 인지된 신체상 사이의 차이가 적을수록 정서적으로 자신에게 만족하게 된다¹⁹⁾. 선행 연구들에 의하면, 청소년들은 대부분 자신의 용모에 불만족하며²⁰⁾, 남자보다 여자가 불만족하고 있었다²¹⁾.

Horn과 Gurel¹⁹⁾은 여고생들 사이에서는 신체에 만족하는 학생이 의복에 관심이 많으며, 의복을 이성의 주의를 끄는데 사용하고, 신체적 자아의 만족도가 높은 사람이 정신적 안정도 높다고 하였다. 이명희²²⁾의 연구에서는 신체적 만족도가 높은 사람은 의복행동 하위변인인 심미성과 주의집중성을 중요시 한다고 하였다.

4. 청소년기 의복행동

청소년기는 의복이나 외모를 사회에 자신을 적응시키는 수단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큰 관심과 흥미를 나타낸다. 이 시기는 인생의 어느 시기보다 의복에 대한 만족이나 불만족이 기분이나 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의복이 주는 좋은 느낌(well-being)이나 분위기 변화에 민감하게 영향받는 심리적 의존성이 강하게 나타난다. 윤창숙²³⁾의 연구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심리적 의존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Kwon¹⁵⁾의 연구에서는 사적 자의식이 높은 사람이 의복선택시 기분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아, 그들의 기분을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복을 사용하는 경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의복에 대한 관심은 청소년기가 시작되는 12세경부터 급격한 증가를 보여 18세에 최고에 이르며, 18세 이후부터는 어느정도 의복에 대한 관심이 줄어드는데 이는 의복 이외의 다른 면의 관심이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김병미²⁴⁾, 이은미²⁵⁾의 연구에서는 사회

성이 높거나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여중생일수록 의복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또한 청소년기는 다른 어떤 시기보다 의복에 의하여 그들이 소속한 집단에 동조하려는 열망이 강한 때이며, 이는 추상적인 사고보다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동조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정미실²⁶⁾의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의복동조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동조성을 중요시 여기고 사회적 안정감이 높을수록 의복의 개성을 중시하였다^{24,27)}.

청소년기에는 새로운 자아에 눈을 뜨게 되어 자아를 사회와 연결시켜 객관적으로 비판하게 되므로, 타인의 인정과 호감을 얻기 위해 의복착용을 하는 경향이 있다. 여자 중고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미영·이은영²⁸⁾의 연구에서 자아수용성은 자기위주의 의복착용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타인위주의 의복착용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Drake와 Ford²⁹⁾의 연구에서도 자아수용이 잘 된 사람일수록 자기위주의 의복착용을 하고, 자아수용이 잘 안된 사람일수록 타인위주의 의복착용을 하며 자신의 의복이 부적합하다고 느낀다고 하였다.

III. 연구방법 및 절차

연구에 포함된 변인의 연구문제, 용어정의, 측정도구, 조사대상 및 분석방법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용어정의

1) 자아중심성(Egocentrism)

자기와 타인에 대한 인지의 미분화 상태로서 상상속의 청중과 개인적 우화의 두 구인을 포함한다. 본 연구에서는 상상속의 청중 구인만 연구변인으로 포함하였다.

상상속의 청중(Imaginary Audience)

자신과 타인의 생각을 구분하지 못함에 따라 타인들도 자신처럼 자신의 외모와 행동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다는 생각

2) 자의식(Self Consciousness)

사회적으로 독립된 존재로서의 개인을 타인과 구별되게 하는 의식의 형태로서 자신을 스스로의 의식의 대상자로서 생각하는 경향이며, 사적 자의식과 공적 자의식

을 포함한다.

(1) 사적 자의식(Private Self-Consciousness)

자신의 내적 사고와 감정, 기분 등 내부적 사고에 관심을 갖는 것

(2) 공적 자의식(Public Self-Consciousness)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며 타인의 관찰 대상이 되는 사회적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

3) 신체만족도(Body Cathexis)

신체의 전체나 각 부분의 생김새와 기능에 대한 만족감의 정도

4) 의복행동(Clothing Behavior)

(1) 의복관심(Clothing Interest)

의복에 대한 습관, 선택 및 착용 등에 대한 관심

(2) 심리적 의존성(Psychological Dependence)

의복을 통한 기분전환을 느끼거나 의복이 주는 느낌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것

(3) 동조성(Clothing Conformity)

집단내 소속감의 표시로서 소외되지 않기 위하여 집단이 취하는 의복규범을 수용하려는 태도

(4) 과시성(Clothing Exhibition)

눈에 띄는 색이나 스타일의 의복을 선택함으로써 주목을 끌려는 태도

(5) 타인위주의 의복태도(Dressing for Others)

타인들이 자신의 외적인 매력을 인정하게 하기 위하여 의복을 착용하는데 대한 생각과 태도

2. 측정도구

상상속의 청중 척도는 Lapsley등³⁰⁾의 상상속의 청중 척도(New Imaginary Audience Scale: NIAS)의 한국판²⁾을 사용하였다. 대상관계상념(object relation ideation), 대인관계적 환상(interpersonal fantasies), 자아에 대한 이상적인 상(vision of the self)을 내용으로 하는 총 41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4 점 Likert형 척도를 사용하였다.

자의식은 Fenigstein등¹⁴⁾이 개발한 자의식 척도(Self-Consciousness Scale: SCS) 중 사적 자의식 9 문항과 공적 자의식 6 문항을 번안,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7 점 Likert형 척도를 사용하였다. 자의식 척도의 신뢰도 검정결과 공적 자의식 $\alpha = .81$, 사적 자의식 $\alpha = .62$ 로 나타났다.

신체만족도는 Secord와 Jourard³¹⁾가 개발한 신체만

측도(The Body Cathexis Scale) 측정도구 중 신체기능을 제외하고 신체외모의 23 부분에 대한 만족정도를 5점 Likert형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이를 다시 얼굴, 상반신, 하반신, 전신의 4부분으로 재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즉, 얼굴에는 얼굴, 얼굴색, 눈, 코, 입, 턱, 머리결, 피부, 상반신에는 목, 어깨, 가슴, 등, 팔, 손, 하반신에는 허리, 배, 엉덩이, 다리, 발목, 전신에는 키, 몸무게, 체형, 자세를 포함시켰으며, 각 신체 부분의 신뢰도는 $\alpha = .74, .67, .74, .65$ 로 신뢰할 만 하였다.

의복행동변인은 본 연구에 포함시킨 청소년기의 심리적 특성에 의한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된 의복관심, 심리적 의존성, 동조성, 과시성, 타인위주의 의복착용에 관한 문항을 선행연구^{25,26,28,32,33)}로부터 총 19 문항을 선택 사용하였다. 7점 척도의 Likert형 척도를 사용하였다.

인구통계적 특성으로는 학년, 성 이외에 가정 경제수준, 가정의 월수입, 가정의 직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였다.

3.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서울시내 남녀 중·고등학교 2학년생과 서울·경기지역의 남녀 대학교 1, 2학년생이다. 자료수집은 95년 9월부터 12월 사이에 이루어졌다. 조사대상의 분포를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자 289명, 여자 424명이었으며 중학생 203명, 고등학생 295명, 대학생 215명이었다. 가정의 직업은 판매직과 사무직이 50.8%를 차지하였으며 경제수준은 중상과 중중이 45%를 나타내었다. 월수입은 150~300만원 사이가 50.1%를 나타내었다.

4. 자료분석

SAS를 이용하여 각 척도별 응답에 관한 빈도, 평균 및 요인분석, 이원분산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결과 및 논의

1. 연구변인의 하위요인 추출

본 연구의 변인들 중 상상속의 청중, 의복행동의 하위요인을 추출하기 위하여 요인분석(PC model,

varimax rotation, mineigen criteria)을 실시하였으며, 신뢰도 검증은 Cronbach의 내적 일치도 검증을 사용하였다.

1) 상상속의 청중

상상속의 청중 척도 41 문항에 포함된 하위요인들을 분류해 내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부하량이 낮거나, 2개 이상의 하위요인에 동시에 포함되는 11개 문항을 제외한 총 30 문항이 4개의 하위요인으로 구분되었다. 도출된 각 요인의 명칭 및 문항내용은 <표 2>와 같다.

요인 1은 설명력 22.5%의 능력 요인으로 남들보다 뛰어난 능력과 자질을 가진 자기를 상상하는 내용의 9 문항이 이에 속한다. 요인 2는 설명력 7.3%의 외모/인기 요인으로 남들보다 외모가 특출하거나 주위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어서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자기를 상상하는 내용의 8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요인 3은 동정심 요인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동정의 대상이 되는 자기를 상상하는 내용의 8 문항이며 설명력은 6.8%이다. 요인 4는 정의심 요인으로 정의로운 일에 앞장서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는 내용의 5 문항이 포함되었으며 설명력은 6.4%이다.

이상의 네 요인에 의한 총 설명력은 42.8%로 다소 낮은 설명력을 나타내었다. 이는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지적할 수 있으며,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다루지 않은 개인적 우화의 자아중심성을 포함하여 개념을 재정리하는 연구가 요망된다고 하겠다.

2) 의복행동변인

의복행동에 관한 문항들을 요인분석한 결과, 총 4개의 요인이 도출되었고, 전체 변량의 63.9%를 설명할 수 있었으며, 3 문항은 부하량이 낮아 제외되었다. 도출된 각 하위요인의 명칭과 문항의 내용은 <표 3>과 같다.

요인 1은 과시/타인위주의 의복착용 요인으로 설명력은 40.6%이며, 타인들이 자신의 외적인 매력을 인정하게 하기 위해 의복을 착용하거나, 주의를 끌기 위해 의복을 사용하는 행동과 태도에 관한 6 문항이 포함되었다. 요인 2는 의복관심 요인으로 총 5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설명력은 10.1%였다. 요인 3은 설명력 7.0%의 심리적 의존성으로 의복이 주는 느낌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정도를 의미하는 3 문항이 포함되었다. 요인 4는 동조성으로 소속집단 사람들과 비슷한 의복

<표 1> 상상속의 청중의 요인분석결과

문항내용	요인부하량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요인 1 : 능력				
선생님에게 좋은 인상을 주는 내 모습	.63	.10	.20	.01
중요한 상을 타는 내 모습	.63	.16	.07	.25
남들에게 다정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내 모습	.61	.01	.31	-.03
많은 친구들과 사귀는 내 모습	.58	.13	.22	-.05
'침착함' 때문에 칭찬을 받는 내 모습	.53	.02	.11	.05
머리가 좋아서 부러움을 사는 내 모습	-.53	.37	-.11	.14
중요한 연설을 하는 내 모습	.51	.08	.16	.23
남들에게 강하게 보이는 내 모습	.51	.07	.10	.43
중요한 리더가 된 내 모습	.50	.32	-.10	.25
요인 2 : 외모/인기				
T.V. 탈렌트나 영화배우로 스타가 된 내 모습	-.13	.67	.18	.18
잘생겼기 때문에 남의 부러움을 사는 내 모습	.25	.64	-.05	.16
옷차림이 멋있어서 부러움을 사는 내 모습	.34	.64	.03	-.03
인기있는 이성친구와 사귀는 내 모습	.20	.63	.11	.03
인기가수가 된 내 모습	-.16	.62	.18	.19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는 내 모습	.46	.51	.02	.17
내가 갖고 있는 물건(워크맨, 유명상포가 붙은 옷이나 신발) 때문에 남의 부러움을 사는 내 모습	.17	.47	.26	-.08
인기있는 아이에게 데이트를 신청하는 내 모습	.12	.42	.25	.26
요인 3 : 동정심				
만일 내가 입원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 어떻게 할지를 상상하는 일	.29	.10	.63	.09
내 정례식에 누가 올지, 그들의 마음은 어떻게 상상하기	.11	-.03	.59	.18
많은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당하는 내 모습	.01	-.01	.57	.03
만일 내가 떠나가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느낄지를 상상해 보는 일	.33	-.02	.57	-.02
이성친구로부터 거절을 당하는 내 모습	-.14	.21	.56	.10
만약 내가 부모를 잃는다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를 상상하는 일	.12	.15	.53	.07
내 외모에 대해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상상하는 일	.20	.42	.49	-.03
나에게 마음의 상처를 준 사람들이 후회하는 모습을 상상하기	.13	.17	.46	.00
요인 4 : 정의심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내 모습	.21	.05	.14	.77
위험에서 친구를 구하는 내 모습	.25	-.02	.12	.72
깡패에게 맞서는 내 모습	.06	.13	.10	.70
훌륭한 운동선수가 된 내 모습	-.11	.10	-.01	.57
나 때문에 우리팀이 이기는 것을 상상하기	.18	.20	.01	.47
고유근(Eigenvalue)	6.73	2.18	2.04	1.91
신뢰도(Reliability)	.80	.78	.74	.72
총 분산에 대한 비율(Pct of var)	22.40	7.30	6.80	6.40
총 설명력	42.8			

< 표 2 > 의복행동의 요인분석 결과

문항내용	요인부하량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요인 1 : 과시/타인위주의 의복착용				
같은 스타일, 같은 값이면 나는 남의 눈에 뵈 수 있는 색의 옷을 선택하겠다.	.72	.18	-.02	-.16
내가 새 옷을 입고 나갈 때 걸가던 사람들이 쳐다보면 몹시 기분이 좋다.	.69	.16	.31	-.08
외모는 매우 중요한 것이므로 약점을 최소한 줄이고, 외모를 좋게 하기 위해서는 옷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야 한다.	.63	.27	.19	.10
옷을 잘 입고 있을 때에는 다른 사람들이 봐줬으면 하고 생각할 때가 많다.	.62	.26	.34	.10
다른 사람에게 아름답게 보이고 싶은 사람은 자신의 외모 중 자신 있는 곳을 강조하는 옷을 입어야 한다.	.61	.11	.36	.16
나는 나의 옷차림이 어떻게 보일까에 대해서 신경을 쓴다.	.57	.35	.32	.26
요인 2 : 의복관심				
나는 친구가 옷을 살 때 같이 가서 어떤 옷이 있나를 살펴본다.	.14	.77	.29	-.01
T.V나 영화를 볼 때 가수나 배우의 옷차림도 관심을 갖고 본다.	.24	.73	.31	.04
의복을 세련되게 입는 것은 내 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37	.65	.34	-.04
나는 부모님이 좋아하지 않더라도 친구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옷을 입겠다.	.38	.62	-.22	.29
여러가지 다른 옷을 섞어서 입어보고 그것들이 조화를 이루는지를 보는 것은 재미있는 일이다.	.26	.61	.52	-.03
요인 3 : 심리적 의존성				
나는 옷을 입을 때 마음이 편해지고 자신감이 생기는 옷을 자주 입는다.	.25	.12	.73	.04
나는 그날의 기분에 따라 입을 옷을 결정한다.	.15	.26	.73	.06
내가 입을 옷에 따라 내 행동이 달라지곤 한다.	.32	.29	.69	.12
요인 4 : 동조성				
나는 친구들과 비슷한 옷을 입어야 마음이 편하다.	.04	.02	.03	.86
만약 어떤 모임에서 내가 친구들과 다른 옷을 입으면 소외감을 느낄 것이다.	.00	.04	.11	.85
고유근(Eigenvalue)	6.50	1.61	1.12	1.00
신뢰도(Reliability)	.82	.83	.77	.69
총 분산에 대한 비율(Pct of var)	40.60	10.10	7.00	6.20
총 설명력	63.9			

을 착용하려는 태도를 의미하며, 설명력은 6.2%, 2 문항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의복행동변인의 요인분석 결과는 남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부희³⁰⁾ 논문의 결과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즉, 이부희의 결과에서는 의복관심, 심리적 의존성, 타인위주의 의복착용, 동조성, 과시성의 순으로 5개 요인이 도출된데 반해, 본 연구에서는 과시/

타인위주의 의복착용이 하나로 묶여 제 1 요인으로 도출되고, 의복관심, 심리적 의존성, 동조성의 순으로 총 4개의 요인이 도출되었다. 이러한 요인의 순위와 내용의 차이는 중·고등학생만을 대상으로 했을 때와 중·고등학생과 대학생을 함께 조사했을 때의 서로 다른 응답자의 영향인 것으로 사려된다. 따라서 대학생이 포함되었을 때, 과시성과 타인위주의 의복착용에 관한 문항이

합쳐져서 제 1 요인으로 부각된 것은 대학생 집단이 다른 사람의 반응을 매우 의식하고 자기표현과 외모의 개선을 위해 의복을 매우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청소년기 심리적 특성 및 의복행동변인의 성과 연령에 따른 차이

1) 심리적 특성의 성과 연령에 따른 차이

(1) 상상속의 청중

상상속의 청중 경향 4개 하위요인 각각에 대해 성과 연령으로 이원분산분석(two-way ANOVA)한 결과는 <표 3>과 같이 모든 하위요인에서 성과 연령의 주효과가 있었으며 정의심 요인을 제외한 세 요인에서 성과 연령간의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났다.

각 요인별로 점수경향과 함께 살펴보면, 능력 요인의 전체 평균은 2.62로 이론적인 평균값인 2.50보다 약간 높으며, 여자가 남자보다 높고, 연령에 따라서는 대학생, 고등학생, 중학생의 순으로 나타나, 남들보다 개인적으로 보다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가진 자기를 상상하는 경향이 여자에서, 또한 나이가 많을수록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 연령의 상호작용효과에 따르면, 남자는

연령이 많을수록 능력 요인의 자아중심성이 커지는 (2.33~2.73) 반면, 여자는 고등학교(2.82)까지는 높아지다가 대학생(2.79)에서는 오히려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외모/인기 요인의 전체 평균은 2.42로 약간 낮으며, 여자가 남자보다 높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성과 연령간의 상호작용 효과에 따르면, 남자는 중학생(2.14)보다 고등학생(2.40), 대학생(2.41)이 더 높았으나, 여자는 중·고등학생(2.55)보다 대학생(2.39)에서 오히려 낮아지는 반대의 경향을 보였다.

동정심 요인의 전체 평균은 2.46으로 중간 정도이며, 여자가 남자보다 높고, 고등학생, 대학생이 중학생보다 높았다. 상호작용 효과에 따르면, 남자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동정심 요인도 증가하나(2.22~2.49), 여자는 고등학생(2.50~2.61)까지는 증가하다가 대학생(2.52)에서 오히려 떨어지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상의 세가지 요인의 분석 결과에서 상상속의 청중의 능력, 외모/인기, 동정심 요인에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자아중심성 경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에서는 단정한 몸가짐과 언행 등에 대한 주의가 특히 여성에게 강조되기 때문에 여자들이 타인들에게 비춰지는 자신의 모습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는 경향이 남자들보다 강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남자의 경우,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아중심성도 커지는 경향이 나타나 청소년 중기 이후 자아중심성이 증가한다는 우리나라 선행연구들^{4,5,11)}의 결과를 지지하였다. 그러나 여자의 경우, 고등학생까지는 증가하였으나, 대학생에서는 오히려 떨어지는 경향을 나타내어 고등학교 시절 이후에는 자신이 타인의 관심의 초점이 된다고 믿는 자기집중 성향을 탈피하고, 현실적인 자신을 직시하는 성향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여자 대학생의 외모/인기 측면의 상상속의 청중 상념의 감소는 두드러지게 나타나 오히려 남자보다도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

이와는 반대로 정의심 요인은 남자가 여자보다 더 높았고, 고등학생이 중학생, 대학생보다 더 높게 나타나 다른 세 요인의 자아중심성 경향과는 다른 결과를 나타내었다.

(2) 자의식

자의식의 가능한 점수범위는 1~7점이었으며, 본 연구의 전체 응답자의 사적 자의식 평균은 4.61, 공적 자

<표 3> 상상속의 청중 각 하위요인에 대한 성·연령의 이원분산분석 결과

각 변인의 성·연령 수준별 평균값 ^a					
구분	변인	능력	외모/인기	동정심	정의심
		성	남 2.46	2.31	2.33
	여 2.74	2.50	2.55	2.26	
연령	중 2.42	2.34	2.36	2.35	
	고등 2.66	2.49	2.50	2.48	
	대 2.76	2.40	2.51	2.34	

분산분석 결과

변량원	변인	능력	외모/인기	동정심	정의심
		성 효과	48.09***	17.87***	30.18***
연령 주효과	19.00***	3.11*	3.39*	6.09**	
성 x 연령	7.81***	6.68**	4.29*	.05	

a : 가능한 점수범위 1~4 점

*p<.05 **p<.01 ***p<.001

<표 4> 자의식 각 하위변인과 성·연령의 이원분산분석 결과

각 변인의 성·연령 수준별 평균값 ^a			
구분	변인	공적 자의식	사적 자의식
성	남	4.65	4.32
	여	5.40	4.81
연령	중	4.87	4.28
	고등	5.25	4.72
	대	5.09	4.78

분산분석 결과			
변량원	변인	공적 자의식	사적 자의식
성	주효과	81.86***	69.47***
연령	주효과	3.75*	19.90***
성 x 연령		11.92**	.53

a : 가능한 점수범위 1~7 점

*p<.05 **p<.01 ***p<.001

의식 평균은 5.10 으로 청소년들의 전체적인 자의식 수준은 높은 편이며, 특히 공적 자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 연령에 따른 이원분산분석 결과, <표 4>와 같이 성과 연령의 주효과가 있었으며, 공적 자의식에서는 성과 연령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다. 사적·공적 자의식 모두 여자가 남자보다 높아 여학생이 자신의 내적인 감정에 관심을 기울이거나 또한 외적으로 타인에게 비취지는 자신을 생각하면서 외모에 신경을 쓰는 경향이 높았다. 연령에 따른 차이를 보면 사적 자의식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높아졌으나, 공적 자의식은 성별과 연령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나타내어 여학생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공적 자의식이 감소하는 경향(5.55~5.32)이 나타나지만, 남학생은 중학생(4.21)보다 고등학생(5.01)에서 증가하다가 대학생(4.74)에서 감소하는 상이한 흐름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상상속의 청증을 통해 조사한 자아중심성에서 능력, 외모/인기, 동정심 요인 등에서 여자가 남자보다 높은 값을 나타낸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으며, 자의식이 자아중심성과 높은 정적 상관을 보인다는 선행연구²⁾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한편, 남학

<표 5> 신체만족도 각 부분에 대한 성·연령의 이원분산분석 결과

각 변인의 성·연령 수준별 평균값 ^a					
구분	변인	얼 굴	상반신	하반신	전 신
성	남	3.23	3.25	3.12	2.97
	여	3.06	3.02	2.58	2.56
연령	중	3.26	3.18	2.90	2.84
	고등	3.02	3.08	2.69	2.61
	대	3.15	3.09	2.86	2.77

분산분석 결과					
변량원	변인	얼 굴	상반신	하반신	전 신
성	주효과	12.80***	28.93***	109.20***	60.87***
연령	주효과	7.82***	.79	3.86**	4.77**
성 x 연령		4.82**	3.24*	1.42	1.28

a : 가능한 점수범위 1~5 점

*p<.05 **p<.01 ***p<.001

생의 경우 자신이 관찰되는 개체로서의 의식이 여학생보다 늦게 발달하여 고등학생때 가장 높아지다가 대학생이 되면서 비로소 내적 자의식이 증가하면서 공적 자의식이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3) 신체만족도

신체만족도의 각 하위부분별 점수경향을 살펴보면 얼굴에 대한 신체만족도의 평균은 3.13이며, 상반신은 3.11, 하반신은 2.80, 전신은 2.72로 하반신과 전신부분에서 이론적인 평균값인 3.00보다 낮게 나타나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은 허리, 배, 엉덩이, 다리, 발목, 키, 몸무게, 체형, 자세 등에 대해 불만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신체부분에 대해 성과 연령으로 이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5>와 같이 모든 부분에서 성의 주효과가 나타났으며, 여자가 남자보다 불만족하고 있었다. 연령의 효과는 상반신을 제외한 모든 부분에서 고등학생, 대학생, 중학생의 순으로 불만족 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분석한 자아중심성과 자의식이 고등학생, 대학생, 중학생의 순으로 높게 나타난 것과 상반된 결과로,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자아중심성과

자의식은 상호간에 정적 상관관계를 가지며, 신체만족도와는 부적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는 이부희³⁰⁾의 연구결과에서 자아중심성이 자의식과는 정적 상관, 각 부위의 신체만족도와는 부적 상관을 가지는 것과, 또한 공격·사적 자의식이 신체만족도와는 부적 상관을 가진다는 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한편, 얼굴과 상반신 부분에서의 성과 연령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남자는 고등학생에서 만족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 여자는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특히 남자의 얼굴과 상반신에 대한 만족도는 고등학생이 가장 낮았으며, 이는 이 시기의 남학생들의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라 하겠다.

2) 청소년기 의복행동의 성·연령에 따른 차이

의복행동 각 하위변인의 이원분산분석 결과 <표 6>과 같이 모든 변인에 대해 성에 의한 주효과가 있었으며, 과시/타인위주의 의복착용과 심리적 의존성에는 연령의 주효과가, 과시/타인위주의 의복착용과 의복관심에는 성과 연령의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다.

(1) 과시/타인위주의 의복착용

본 연구의 전체 조사대상의 과시/타인위주의 의복착용의 평균은 4.65로 이론적 평균값인 4.00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자는 연령에 따라 큰 차이없이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으나(4.90~5.01) 남자는 중학생(3.72)에 비해 고등학생(4.46)에서 매우 큰 차이로 높아지다가 대학생(4.35)에서 다시 조금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여학생들의 경우, 과시/타인위주의 의복착용에서 매우 높은 평균점수를 보였는데 이는 자신의 행동과 외모 등을 타인이 좋아해 줄 수 있는 모습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경향이 여학생에게서 특히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2) 의복관심

의복관심의 전체 평균은 4.61로 대체로 높게 나타났으며,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어 여자가 남자보다 매우 높은 값을 나타내었으며 성과 연령간의 상호작용 효과에 따르면 여자의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높은 의복관심을 보인 반면(4.79~4.91), 남자는 중학생(3.62)에 비해 고등학생(4.27)이 상당히 증가했다가 유의한 차이는 아니지만 대학생(4.19)에서 오히려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3) 심리적 의존성

의복의 심리적 의존성의 전체 응답자의 평균 점수는 4.41로서 중간 정도를 나타내었다. 성과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여자가 남자보다 높았고, 대학생, 고등학생, 중학생의 순으로 심리적 의존성이 높게 나타났다.

(4) 동조성

동조성의 전체 평균점수는 3.00으로 낮았다. 이는 의복동조성이 사춘기 청소년에게 중요한 측면이라는 Barr 및 Vener의 연구결과와는 차이가 있었으나, 우리나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26,35)}에서 동조성이 낮게 나타난 것과는 일치된 결과이다. 동조성에 있어서는 성의 주효과만이 나타났으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동조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자는 남자보다 자아중심성과 자의식이 높고 신체만족도는 낮으며, 의복행동 각 측면에서 높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여학생들의 높은 의복관심과 심리적 의존성 및 타인의 시선을 많이 의식한 의복행동 경향 등은 청소년기 여학생들의 의복이 이들의 내적 심리상태를 반영하는 정도가 크다고 볼 수 있으며, 대인관계상의 타인과의 상호작용 실태를 투영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가능성이 큰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청소년기 여학생들의 의복행동 실태를 심층적으

<표 6> 의복행동 각 하위요인에 대한 성·연령의 이원분산분석 결과

각 요인의 성·연령 수준별 평균값 ^{a)}					
구분	변인	과시/타인 위주의 의복착용	의복관심	심리적 의존성	동조성
성	남	4.16	3.95	3.69	2.72
	여	4.98	5.06	4.61	3.19
연령	중	4.30	4.34	3.77	2.89
	고등	4.81	4.68	4.52	3.00
	대	4.76	4.77	4.88	3.11

분산분석 결과				
변인	과시/타인 위주의 의복착용	의복관심	심리적 의존성	동조성
성 주효과	86.08***	126.98***	154.05***	17.35***
연령 주효과	7.88***	2.52	29.58***	.65
성 x 연령	4.70**	4.79**	.42	.85

a : 가능한 점수범위 1~7 점
 *p<.05 **p<.01 ***p<.001

로 분석하는 것은 이들의 심리상태 분석과 기타 이들의 여러가지 사회·문화적 제반 문제들의 원인을 규명하는데 매우 유용한 작업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연령면에서는 고등학생이 타 연령층에 비해 특히 자아중심성, 자의식이 높고 자신의 신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의복착용시 타인의 눈을 의식하거나 과시하려는 경향 및 심리적으로 의존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다.

3. 청소년기의 의복행동에 대한 심리적 특성들의 영향

연구변인들에 대한 성과 연령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모든 변인에서 성과 연령에 따른 차이가 크게 나타났으므로 청소년기의 심리적 특성인 자아중심성, 자의식, 신체만족도가 의복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응답자들을 성과 연령에 따라 6개의 집단으로 분류하여 다단계 회귀분석(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의복행동 요인별 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7>~<표 10>과 같다.

1) 과시/타인위주의 의복착용

과시/타인위주의 의복착용에는 성과 연령에 따른 6 집단 모두 공적 자의식과 상상속의 청중의 외모/인기 요인의 영향력이 매우 두드러지게 작용하여 이들 변인에 의해 36~50%가 설명되었다. 즉 청소년기의 남녀는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존재로, 또는 타인의 관찰의 대상이 되는 존재로 인식할수록, 혹은 외

모나 인기가 좋아 남의 부러움을 사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는 성향이 높을수록, 눈에 띄는 옷을 입어 주의를 끌려고 하거나 타인들이 자신의 외적인 매력을 인정하게 하기 위하여 의복을 착용하는 의복행동을 한다고 볼 수 있다.

2) 의복관심

의복관심에 대한 심리적 특성의 영향은 성과 연령에 따라 다양한 차이를 보였다. 전체적으로 볼 때 공적 자의식이 높을수록 외모/인기가 좋은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는 경향이 높을수록 의복의 선택 및 착용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또한 남자 고등학생과 여자 대학생의 경우, 의복관심을 높이는 요인에 공적 자의식과 상상속의 청중의 외모/인기 요인 이외에도 사적 자의식, 정의심 요인, 하반신의 신체만족도, 능력 요인 등 다른 심리적 변인의 영향력이 함께 작용하였다. 한편, 남자 중학생, 고등학생집단에서 정의심 요인이, 여자 중학생, 대학생 집단에서 능력 요인이, 남자 고등학생 집단에서 사적 자의식이 음의 영향을 나타낸 것을 볼 때 이 시기의 의복에 대한 관심은 자신의 내면적인 상태에 관심이 높을수록 적어지며, 또한 청소년기의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측면을 보다 직접적으로 표현해 주는 것이라 하겠다.

3) 심리적 의존성

심리적 의존성에서는 남자 고등학생을 제외한 모든 집단에서 사적 자의식의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상속의 청중의 외모/인기 요인도 남자 중학생을

<표 7> 과시/타인위주의 의복착용에 대한 심리적 특성들의 다단계회귀분석 결과

집단구분	심리적 변인	β	t 값	R ²	F 값			
남	중 학생	공적 자의식	.433	5.505***	.508	51.613***		
		자아중심성(외모/인기)	.404	5.141***				
	고등학생	공적 자의식	.455	5.426***				
		자아중심성(외모/인기)	.279	3.324**				
	대 학생	자아중심성(외모/인기)	.338	2.891**			.369	15.003***
		공적 자의식	.287	3.147***			.401	32.416***
여	중 학생	자아중심성(외모/인기)	.437	4.796***	.362	35.194***		
		공적 자의식	.287	3.147***				
	고등학생	자아중심성(외모/인기)	.391	6.387***				
		공적 자의식	.369	6.015***				
	대 학생	공적 자의식	.393	5.333***			.400	42.692***
		자아중심성(외모/인기)	.371	5.032***				

p<.01 *p<.001

<표 8> 의복관심에 대한 심리적 특성들의 다단계회귀분석 결과

집단구분	심리적 변인	β	t 값	R ²	F 값		
남	중 학생	자아중심성(외모/인기)	.499	4.498***	.291	13.551***	
		공적 자의식	.227	2.390*			
		자아중심성(정의심)	-.220	-2.099*			
	고등학생	공적 자의식	.423	4.951***	.423	14.339***	
		자아중심성(외모/인기)	.406	4.593***			
		자아중심성(정의심)	-.182	-2.151*			
		사적 자의식	-.200	-2.448*			
		신체만족도(하반신)	.179	2.265*			
	대 학생	자아중심성(외모/인기)	.509	5.371***	.464	33.807***	
		공적 자의식	.270	2.847**			
	여	중 학생	자아중심성(외모/인기)	.599	6.350***	.443	18.914***
			자아중심성(능력)	-.215	-2.383*		
고등학생		자아중심성(외모/인기)	.482	6.739***	.268	22.653***	
		공적 자의식	.193	2.914**			
대 학생		자아중심성(외모/인기)	.431	4.756***	.320	11.786***	
		공적 자의식	.226	2.782**			
		자아중심성(능력)	-.304	-3.147**			
		사적 자의식	.174	2.003*			

*p<.05 **p<.01 ***p<.001

<표 9> 심리적 의존성에 대한 심리적 특성들의 다단계회귀분석 결과

집단구분	심리적 변인	β	t 값	R ²	F 값	
남	중 학생	공적 자의식	.373	3.895***	.346	17.493***
		사적 자의식	.263	2.754**		
		신체만족도(상반신)	.168	2.061*		
	고등학생	자아중심성(외모/인기)	.266	2.750**	.168	10.289***
		공적 자의식	.230	2.373*		
	대 학생	사적 자의식	.353	3.563***	.332	19.410***
자아중심성(외모/인기)		.348	3.513***			
여	중 학생	사적 자의식	.369	4.359***	.330	15.726***
		자아중심성(외모/인기)	.351	4.130***		
	고등학생	자아중심성(외모/인기)	.274	3.951***	.180	13.620***
		사적 자의식	.193	2.704**		
	대 학생	사적 자의식	.385	4.330***	.316	11.526***
		신체만족도(전신)	.212	2.741**		
		자아중심성(외모/인기)	.247	2.665**		
		자아중심성(능력)	-.277	-2.821**		

*p<.05 **p<.01 ***p<.001

<표 10> 동조성에 대한 심리적 특성들의 다단계회귀분석 결과

집단구분		심리적 변인	β	t 값	R ²	F 값
남	중 학생	신체만족도(전신)	.226	2.327**	.051	5.415*
여	고등학생	신체만족도(얼굴)	-.150	-2.080*	.023	4.328*
	대 학생	자아중심성(외모/인기)	.269	3.192**	.072	10.192**

*p < .05 **p < .01

제외한 모든 집단에서 영향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외모/인기가 좋은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는 경향뿐만 아니라 자신의 내적 사고와 감정, 기분 등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 의복을 통해 기분 전환을 느끼거나 의복이 주는 느낌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4) 동조성

동조성은 남자 중학생과 여자 고등학생 집단에서 신체만족도가, 여자 대학생 집단에서 외모/인기 요인이 매우 낮은 설명력을 가진 것을 제외하고는 의복행동변인 중 심리적 요인들의 설명력이 가장 낮게 나타난 변인이었다. 의복행동변인 중 동조성은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청소년기의 의복행동의 중요한 특성으로 다루어져 왔으나 연구결과는 대체로 문헌에서 제시되는 것과는 반대로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이 낮은 동조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동조성 측정도구의 문제점을 시사하는 것일 수 있으며, 따라서 동조성 측정도구의 수정·보완에 대한 연구가 요망된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의복행동의 하위요인 중 과시/타인위주의 의복착용과 의복관심, 심리적 의존성에 가장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변수들은 자의식과 상상속의 청중의 외모/인기 요인이었으며, 사적 자의식은 특히 심리적 의존성에 영향력 있는 변수로 작용하였다. 이제까지 의복행동에 관련된 선행연구들에서 의복행동에 미치는 신체만족도의 영향력은 매우 높은 것으로 보고되어 왔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 분석한 자아중심성과 자의식의 의복행동변인에 관한 설명력은 신체만족도보다도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자아중심성과 자의식은 신체만족도와는 부적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밝혀져 이들 두변인은 의복행동 뿐만 아니라 신체만족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보다 근원적인 심리변인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자아중심성은 4개 요인

중 외모/인기는 의복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나타내는 반면, 능력, 동정심은 부적 영향력을 가지며, 자아중심성을 전제로서 분석한 이부희³⁴⁾의 연구에서 보다 의복행동에 대한 설명력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볼 때, 후속연구에서 의복행동 설명변수로서의 자아중심성의 개념 정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개인의 의복행동을 결정짓는 중요한 심리변인의 하나로 앞으로의 의복행동 연구에서 보다 깊이 있게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남녀 중·고·대학생의 자아중심성과 자의식, 신체만족도의 수준을 알아봄으로써 청소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청소년들의 의복행동 특성을 설명하는 심리적 특성 변인을 밝혀내고자 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상속의 청중 척도를 요인분석한 결과, 능력, 외모/인기, 동정심, 정의심의 4 요인이 도출되었다. 청소년들의 전체 자아중심성은 중간 정도이며, 여자가 남자보다 높고, 고등학생과 대학생이 중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별과 연령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다. 하위요인에 따른 결과에서도 정의심 요인을 제외한 나머지 능력, 외모/인기, 동정심 요인에서 여자가 높았으며, 연령에서는 남자의 경우,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아중심성이 높아졌으나, 여자의 경우 고등학생이 가장 높고 대학생은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둘째, 우리나라 청소년의 자의식은 높은 편이고, 공적 자의식이 사적 자의식보다 더 높았다. 공적, 사적 자의식 모두에서 여자가 남자보다 높았고, 연령에 따른 차이에서는 사적 자의식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높아졌으나, 공적 자의식은 성과 연령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가

있었다.

셋째, 신체만족도에서는 하반신과 전신에 대해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가 남자보다 신체불만이 높았고, 고등학생이 가장 신체불만이 높았다.

넷째, 의복행동변인을 요인분석한 결과 과시/타인위주의 의복착용, 의복관심, 심리적 의존성, 동조성의 4 요인이 도출되었다. 과시/타인위주의 의복착용 경향은 높은 편이었으며, 여자와 고등학생이 더 높았다. 의복관심은 높은 편이었고, 여자가 남자보다 높았다. 연령에 따른 의복관심의 차이는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심리적 의존성은 중간 정도이며, 여자가 남자보다 높고, 후기 청소년(대학생, 고등학생)이 전기 청소년보다 더 높았다. 동조성은 낮게 나타났으며, 여자가 남자보다 동조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연령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다섯째, 청소년기 의복행동에 대한 심리적 변인의 설명력은 과시/타인위주의 의복착용에 대해서 가장 높았고, 동조성에 대해서 가장 낮았다. 모든 연령층의 과시/타인위주의 의복착용에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심리변수는 공적 자의식과 외모/인기 요인의 자아중심성이었다. 의복관심 역시 공적 자의식과 외모/인기 요인의 자아중심성에 가장 큰 영향을 받았으나, 그외에도 연령에 따라 사적 자의식, 능력 요인의 자아중심성, 신체만족도 등의 다양한 심리변수의 영향을 받았다. 특히 남자 고등학생의 의복관심은 여러 심리변인이 복합적인 영향을 미쳤다. 심리적 의존성에는 사적 자의식의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동조성은 심리변인에 의한 영향력이 가장 적은 의복행동변인이었다.

본 연구의 결과 자아중심성은 청소년기 의복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자의식과는 정적 상관관계를, 신체만족도와는 부정적 상관관계를 가지는 중요한 심리변인이 밝혀졌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성인 연령층에서의 자아중심성의 의복행동에 대한 영향을 규명하는 것과 연구대상자의 전국적인 표집을 통해 지역에 따른 차이를 규명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자아중심성 및 자의식과 의복행동간의 관련성이 보다 명확하게 규명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참 고 문 헌

- 1) Elkind, D. (1967). Egocentrism in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38, 1025-1034.
- 2) 김인경(1993). 청소년기 자아중심성과 관련된 변인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3) 김인경·윤진(1988). 청소년기 자아중심성과 관련된 변인 연구 — 인지 발달, 지각된 부모의 양육 태도 유형과의 관계 —, *한국심리학회지*, 7(1), 54-62.
- 4) 김인경·장근영(1992). 청소년기 자아중심성과 관련된 변인들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5(1), 143-156.
- 5) 윤진·김인경·김길청(1989). 청소년 비행과 청소년기 자아중심성 발달의 관계. *형사정책*, 4(23), 67-96.
- 6) 윤진(1993). 청소년 심리학. 한국 청소년 개발원, 서울; 도서출판 서원.
- 7) Ford, M.E. (1979). The construct-validity of egocentrism, *Psychological Bulletin*, 86, 1169-1188.
- 8) Lapsley, D.K. (1991). *Egocentrism theory and the "New Look" at the imaginary audience and personal fable in adolescence*, in R.M. Lerner, A.C. Peterson, J. Brooks-Gunn (Eds.), *The encyclopedia of adolescence*, N.Y.: Garland.
- 9) Elkind, D. (1978). Understanding the young adolescents, *Adolescence*, 13, 126-134.
- 10) Chandler, M. (1973). Egocentrism and antisocial behavior: The assessment and training of social perspective-taking skill, *Developmental Psychology*, 9, 326-332.
- 11) 장근영·윤진(1992). 청소년기 자아중심성-분리개별화 과정 및 역할취득 수준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5(1), 157-175.
- 12) Enright, R.D., Lapsley, D.K. & Shukla, D.G. (1980). Adolescence egocentrism in early and late adolescence, *Adolescence*, 14, 687-695.
- 13) Adams, G.R. & Jones, R.M. (1981). Imaginary audience behavior: A validation study,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1, 1-10.
- 14) Fenigstein, A., Scheier, M.F. & Buss, A.H. (1975). Public and private self-consciousness: assessment and theor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5, 522-527.
- 15) Kwon, Y.H. (1991). The influence of the perception of mood and self-consciousness on the selection of clothing,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9(4), 41-47. 487-511.
- 16) Elliott, G.C. (1984). Dimensions of the self-concept: A source further distinction in the nature of self-consciousnes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3(4), 285-306.
- 17) 김민수(1992). 성인여성의 자의식에 따른 의복행동

- 연구. 오산전문대학교 논문집, 제12권.
- 18) 양은주(1993). 자의식과 부정적 생활경험이 대학생의 음주경험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9) Horn, M.J. & Gurel, L.M. (1981). *The second skin* (3rd ed.), Boston: Houghton Mifflin Co., Ltd.
 - 20) 김인식(1981), 청소년 심리, 서울: 배영사, 164-165.
 - 21) 구자명·이명희(1994). 남녀중학생의 외모만족도와 사회성 및 성취동기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2(5), 153-163.
 - 22) 이명희(1982). 예의·정숙성과 심미성을 중심으로 한 대학생의 의복행동과 관련된 심리적 변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3) 윤창숙(1983). 청소년의 의복행동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4) 김병미(1975). 청소년의 의복행태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13(3), 31-41.
 - 25) 이은미(1985). 여자중학생의 성격특성 및 또래집단 수용에 따른 의복행동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6) 정미실(1984). 남자 중고등학생의 의복행동과 지각향성과의 상관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7) 강혜원(1974). 대학생의 개성과 유행을 중심으로 한 의상 행위와 성격 특성과의 관계. 연세논총, 11, 349-376.
 - 28) 김미영·이은영(1983). 연령과 사회계층에 따른 의복 불만감과 관련변인 연구 — 자아수용성과 자타위주의 의복착용 —. 한국의류학회지, 7(2), 79-87.
 - 29) Drake, M.F. & Ford, I.M. (1979). Adolescent clothing and adjustment,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7, 283-291.
 - 30) Lapsley, D.K., FitzGerald, D.P., Rice, K.G. & Jackson, S. (1989). Separation-individuation the "New Look" at the imaginary audience and personal fable: A test of an integrative model,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4, 483-505.
 - 31) Secord, P.F. & Jourard, S.M. (1953). The appraisal of body cathexis: body cathexis and the self,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17, 343-347.
 - 32) 홍희숙(1989). 자기모니터링과 의복태도, 유행정보원 사용 및 유행의 선도력의 관련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33) 심소연(1983). 여고생의 의복행동과 과시 및 자율욕구와의 상관연구 — 의복과시성, 유행, 교복자율화를 중심으로 —.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34) 이부희(1995). 남녀중고등학생의 심리적 특성과 의복행동과의 관계 연구 — 자아중심성·자의식 신체만족도를 중심으로 —.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35) 이주현·강혜원·조길수(1986). 남자고등학생의 의복행동과 성역할태도간의 상관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0(3), 63-70.